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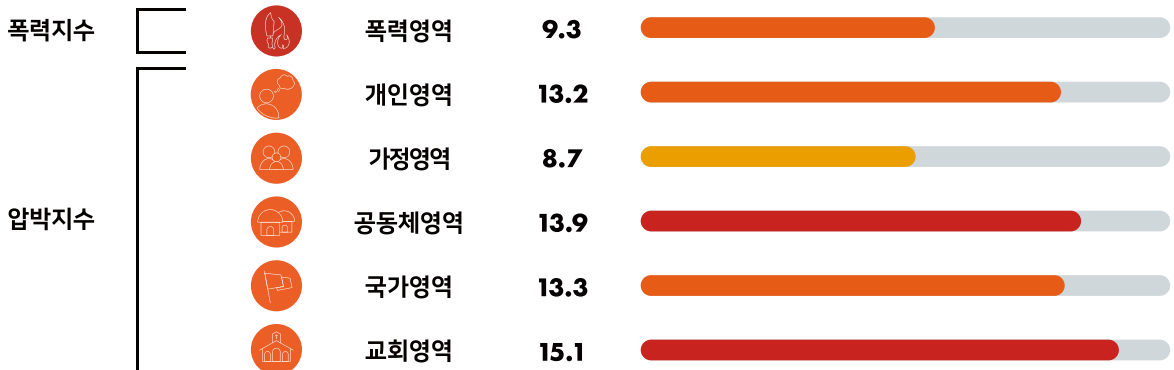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쿠바 (CUBA)

기독교 박해지수
24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1959년 이후 쿠바는 공산당의 통치를 받아 왔으며, 공산당은 종교 기관들을 국가 이념에 맞추려 한다. 정부는 교회의 목소리를 포함해 반대 의견을 조직적으로 억압한다. 교회 지도자나 기독교 활동가들이 정권을 비판하면, 자의적 체포, 음해 캠페인, 이동 제한, 투옥, 괴롭힘에 직면하며, 이는 종종 신체적 폭력을 수반할 수 있는 “구탄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당국은 교회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새 교회 등록을 일상적으로 거부하며, 이로 인해 많은 교회가 불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제재에 노출된다. 교회 활동, 특히 지역 사회에 유익을 주는 활동은 면밀히 감시되며 종종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종교 단체들은 허가 거부, 벌금, 재산 몰수, 철거, 교회 폐쇄(가정교회 포함), 지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심각한 처벌에 직면한다.

쿠바 (CUBA)

국가 정보

지도자 : 미겔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대통령

인구 : 11,153,000명

기독교인 수 : 6,874,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공산주의 국가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6,874,000	61.6
불가지론/무신론	2,314,000	20.8
힌두교	23,500	0.2
기타	1,941,500	17.4
합계		100%

출처²

쿠바의 2019년 헌법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사회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미겔 디아스카넬은 2018년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카스트로 가문을 계승한 이후 당의 강력한 통제를 계속 유지해 왔다(LBBC, 2021년 7월 27일). 2023년 4월, 그는 두 번째 5년 임기를 확보했다. 헌법 개정과 함께 형법, 가족법 및 기타 법률의 개정은 정부 부문 전반에 걸쳐 당의 통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료 체계 붕괴, 인플레이션, 식량 및 에너지 부족이 발생해 인구의 89%에 영향을 미치면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OCDH, 2024년 6월).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으며, 2021년 7월 시위는 15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1,397건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심각한 탄압에 직면했다. 2024년에만 인권 단체들은 949건의 가택 구금, 818건의 자의적 체포, 정치범에

대한 786건의 학대를 포함해 3,921건의 탄압 행위를 기록했다(OCDH, 2025년 1월 7일).

2025년 1월, 바티칸의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553명의 수감자가 석방되었고, 쿠바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 의해 신속히 번복되었다(Reuters, 2025년 1월 20일).

WCD 2025 통계에 따르면 쿠바 기독교인의 86.7%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다른 교단들, 특히 오순절 교회들도 여전히 뚜렷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공산당은 종교사무국을 통해 종교 활동을 통제하며, 순응적인 단체에는 특권을 부여하는 반면 독립 교회들은 제한한다(OHCHR, 2020년 11월 12일). 2019년에 결성된 복음주의 연맹은 탄압과 공식 인정 거부로 직면해 있다. 독립 교회들은 예배 제한, 감시, 체포, 여행 금지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오순절 교회와 다른 기독교 교단들은 시민사회와 시위 활동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2년 형법은 국가 이념에 반대하는 종교적 표현을 범죄화했으며(Gaceta Oficial, 2022년 9월 1일), 2024년에는 최소 996건의 종교의 자유 침해가 기록되었다(Evangelical Focus, 2025년 5월 13일). 인권을 옹호하거나 정치범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벌금, 투옥, 괴롭힘에 직면한다. 2024년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는 협박, 체포, 소환, 공격, 규탄 행위, 감시,

¹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정치범 학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캠페인 이 포함되었다.

2025년에 533명의 수감자가 석방되었지만, 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아직도 감시를 받고 있다(Panampost, 2025년 1월 15일).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보고 기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기록되었으나, 특히 동부 주들과 하바나에서 두드러졌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로마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교회들은 자료나 설교가 공산주의 이념에 반하거나, 시위대를 지지하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에 참여할 경우 국가의 감시와 제한에 직면한다. 일부 교회는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등록 단체들과 동일한 제약과 징벌적 조치에 직면한다.

기독교 개종자

산테리아(Santer a)나 공산당 출신 개종자들은 정권 반대자로 간주되는 교회에 가입하거나 반혁명분자로 간주되는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을 경우 거부와 보복에 직면한다. 당국은 개종을 억제하고 교회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 위협을 사용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오순절, 복음주의, 침례교 단체들은 법적 등록에 심각한 장벽에 직면한다. 이들의 활동은 일상적으로 벌금이나 기소의 구실로 이용되며, 가정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국가의 보복에 체계적으로 노출된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세속적 불관용이 결합된 공산주의 및 포스트공산주의 억압

1959년 혁명 이후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헌법은 사회 전 영역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종교 기관들은 공산주의 이념에 맞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의적 체포, 감시, 이동 제한을 통한 탄압에 직면한다. 2022년 가족법 논쟁 기간 동안 당국은 성경적 가족 모델을 가르치는 교회와 신앙 기반 단체들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종교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으며, 기독교인 부모들은 협박, 벌금, 법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이념적 규범에 저항할 경우 잠재적으로 범죄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관리들은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같은 지역과 관련해 평화, 정의, 인권을 옹호하는 메시지 등 설교를 점점 더 많이 규제하고 있다. 공식 서사에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재, 명예훼손 캠페인, 사역 제한의 위협에 처한다.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이 동인은 공산주의 및 포스트공산주의 억압과 결합되어 있다. 공산당이 유일하게 인정된 정치 단체인 상황에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적대적 직면한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념을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패, 불처벌, 사법 독립의 부재는 사회 전 영역에 대한 공산당의 절대적 통제를 강화한다. 법치를 집행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교회들은 종교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르침이 국가 권위를 약화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 확대된 감시와 조직적인 괴롭힘을 받으며 지속적인 보복 위협 아래 놓인다. 이러한 전술은 독립적인 종교적 목소리를 무력화하고, 그 영향력을 제한하며, 신앙 기반 운동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반대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더 넓은 전략을 반영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일부 기독교 여성들은 신앙에 기반한 낙태 반대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 반발에 직면한다고 보고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 활동가들은 대체로 해고, 협박, 감시를 당한다. 경찰은 정치범의 가족들이 설립한 단체인 “흰옷의 여성들(Ladies in White)”이 교회 예배를 오가는 길에서 계속해서 이들을 학대하고 구타하고 있다. 한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흰옷의 여성들 단체 소속 여성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되었고, 일자리를 잃었으며, 자녀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심리적

남성

기독교 남성, 특히 남성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적 위치에 있고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포되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독교 남성의 투옥은 그들의 아내, 자녀,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거부당했다. 의무 군복무 안에서 기독교 남성들은 신앙이 드러날 경우 추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기독교 종교 자료, 가르침 및 의례 접근 차단
- 상속권·재산권 박탈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여행 금지 및 이동 제한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24	73
2025	26	73
2024	22	73
2023	27	70
2022	37	66



쿠바의 전체 WWL 점수는 73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가정 영역과 폭력 영역에서 소폭 상승이 있었음에도 평균 압박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12.8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WWL 2026 보고 기간 동안, 신앙에 근거해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독재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특히 비소속 교회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을 겨냥한 지속적인 적대 행위가 발생했다. 탄압은 여전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식은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당국의 공산주의적 동기에 맞추어 계속 조정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 여기에는 교회에 대한 공격 증가와 기독교인들이 압박을 받거나 강제로 국가를 떠나야 하는 사례 증가가 포함되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0월 4일: 두 명의 목회자가 공개 종교 집회 허가를 거부당했다. 관리들은 이들이 미등록 상태라는 점을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목회자들은 요건을 준수할 의사가 있었지만, 정부가 독립 교회들에 대한 법적 인정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1월 29일: 당국은 사도 운동(Movimiento Apostólico) 소속 목회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72시간 내 퇴거 명령을 내렸다. 관리들은 그가 그 공간을 예배 장소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한을 받아 왔다고 보고했다.
- 2025년 2월 18일: 국가보안기관은 가톨릭 지도자 다고베르토 발데스와 요안디 이스키에르도를 불러 이들의 박사과정 연구에 대해 심문했다(Facebook 게시물, 2025년 2월 18일). 당국은 발데스에게 그의 교류 관계에 대해 경고했고, 이스키에르도에게는 쿠바의 사회적, 시민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제안을 촉진하는 가톨릭 정신 기반 센터인 콘비벤시아(Convivencia)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압박을 가했다. 이는 독립 연구 센터를 겨냥한 조직적 괴롭힘의 일부이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정부에 의해 수감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수	구금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받은 기독교인 수
2026	20	56	17	10
2025	28	69	13	6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온라인에서의 종교적 표현은 엄격한 감시와 검열에 직면한다. 시행령 370호와 35호에 따라 신앙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로 낙인찍히며, 통신 방해와 벌금에 직면한다. 2021년 시위 이후 감시는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기 검열이 촉발되었다. 통신에 대한 국가 통제는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종교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정권에 비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독교인들은 가택 연금, 여행 제한, 자의적 구금을 겪으며, 종종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다. 구금될 경우 종교 자료와 기도에 대한 접근이 자주 거부되어 종교적 권리가 침해된다.

가정 영역

쿠바 학교들은 공산주의 사상 주입을 강제하며, 학생들에게 체 게바라 구호를 외치도록 요구한다. 2022년 형법 및 가족법은 양육에 대한 국가 통제를 확대했다. 가족법의 광범위한 “심리적 폭력” 정의는 가정에서의 종교 교육을 잠재적으로 범죄화할 수 있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반혁명분자”로 낙인찍히고 괴롭힘과 고립에 직면한다. 국가 이념을 거부하는 가족들은 괴롭힘, 감시 또는 보복에 직면한다. 일부 가족은 자녀를 사상 주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주하며, 구금된 기독교인들은 연락 차단을 겪어 가족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다.

지역사회 영역

정부 정보원과 혁명수호위원회(CDR)는 기독교 활동을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모임이나 미등록 교회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감시와 위협에 직면한다. 독립 교회 구성원들은 일자리와 복지 혜택에서 차별을 겪는다. 정보 작전에는 전자 감시와 교회 침투가 포함되며, 이는 “혁명적 가치” 또는 “전복적 영향력”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교육 제도는 반대 입장을 가진 기독교 학생들의 학업 접근을 제한한다. 미등록 공동체 구성원들은 벌금에 직면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 소환이나 여행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영역

시행령 370호/35호와 새 형법·가족법을 포함한 정부의 법적 체계는 종교적 반대 의견을 범죄화한다. 감시

는 “전복분자”로 낙인찍힌 종교 지도자들과 인권 옹호자들을 겨냥한다. 인권 침해를 폭로하는 기독교인들은 체포, 검열, 여행 금지 또는 기소에 직면한다. 가족법 국민투표 기간 동안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경적 입장을 이유로 음해 캠페인을 겪었다. 미등록 교회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국제적 연계를 가진 교회들은 장벽과 “제국주의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한다. 사법부는 국가 이익에 종속되어 있어 편향된 재판, 강제 자백, 장기 구금이 발생하며, 국제적 감시는 심각하게 제한된다.

교회 영역

교회 등록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인정받은 교회의 대부분은 1959년 이전부터 존재해 온 교회들이다. 더 새로운 단체들은 인정을 거부당하고 “불법”으로 낙인찍히며 벌금, 폐쇄 또는 몰수에 직면한다. 인정받은 교회들조차 예배를 넘어서는 활동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사회 사업은 “전복”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다. 2021년 시위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 의견을 선동하는 이들로 점점 더 표적이 되었으며, 일부 재산은 “국가 안보” 명분으로 압류되었다. 성주간 행렬은 “시위 우려”를 이유로 거부되었다. 정의나 인권에 관한 설교는 감시되며,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인도주의 활동은 방해받는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쿠바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쿠바는 ICCPR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쿠바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에 직면한다(ICCPR 제26조)
-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ICCPR 제9조 및 제19조)
- 체포될 경우, 기독교인들은 구타와 신앙 포기 압력을 경험한다(ICCPR 제18조 및 제10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척당하고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을 받는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및 제24조)

쿠바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산테리아(Santer a) 신봉자들, 특히 미등록 단체인 자유 요루바 협회(Free Yoruba Association) 소속 신봉자들은 정부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여러 지도자들은 평화적 시위 이후 다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나이다 페레스 파세이로(Donaída Prez Paseiro)는 2025년 1월 석방되었지만, 가석방 조건으로 취업 명령을 받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수감하겠다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Marti Noticias, 2025년 3월 5일).



오픈도어의 쿠바 사역

오픈도어는 박해에 직면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신학 자료 제공
- 기도 지원
- 성경 훈련
- 기본 필요를 위한 재정 지원
- 박해 상황에서 신앙을 강화하도록 지원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